

예술 꿈나무들의 비상 '호남예술제' 발레로 막 올랐다



제69회 호남예술제가 24일 오후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막했다. 발레 클래식 부문에 참가한 강린하(수원초 6) 양의 경연을 다중촬영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5개 부문 7월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 미취학아동 '새싹 그리기' 공모전도

'예술 꿈나무들이 비상하는 등용문' 올해로 69회를 맞은 호남예술제가 24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발레 경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호남예술제는 광주일보사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 창간 4년째인 1956년, '지역예술 창달과 예술 꿈나무 발굴'을 기치로 동방극장(옛 무등극장) 및 서석초등학교에서 시작했다. 그동안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예술제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해 왔다.

이날 개막한 제69회 호남예술제는 오는 5월 28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등에서 열린다. 올해도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 등 5개 부문에서 경연을 개최하며 합창, 합주 부문은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학생을 비롯해 휴학생 및 검정고시생, 기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나이제한에 합당한) 등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음악' 부문은 성악(독창), 기악(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기타), 합창, 합주, 앙상블(중주, 중창)으로 나뉘어 열리며, '무용'은 클래식

식발레, 창작발레, 현대무용, 한국창작무용, 한국 전통무용(각각 독무, 군무) 및 실용무용(독무, 2인무 이상) 등을 포함한다. '국악' 부문에는 기악, 성악, 가야금, 타악, 기타 악기별 독주 및 중주가 있다.

미술·작문 부문은 오는 5월 22일(초등부), 23일(중·고등부)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에 있어 진행하며 5월 1일부터 3일까지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각 부문 주제(제목)는 현장에서 발표(초등부 오전 10시, 중·고등부 11시)하며 지정된 화지 및 원고지는 당일 대회 장소 본부석에서 지급한다.

전국 미취학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새싹 그리기 축제(공모전)'는 7월 2일~4일 접수받는다.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8월 크기의 작품을 우편 발송, 주제 제한 없음.

부문별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당일 공지하고 다음 날 발행하는 광주일보 지면(문화면)에도 발표한다. 미술·작품 부문, 새싹 그리기 공모 입상자 발표는 각각 6월 12일, 7월 18일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중단 없이 진행해 온 '호남예술제'는 참가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이자 역사 면에서도 최고(最古)를 자랑하는 종합예술축제다. 총 60여만 명에 이르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역할을 자임해왔으며, 연 1만여 명에 달하는 참가 신청이 이어지는 등 예술 유망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아 왔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며 광주시, 전라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대학 등의 후원과 시상 협조가 뒤따른다.

유구한 역사와 규모 만큼이나 예술계에서 호남예술제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각 부문 수상자는 현재 문화계에서 예술가이자 교육자 등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

시인 고재중, 양성우와 화가 최영훈은 예술제가 낳은 예술가들이다. 또 이탈리아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을 거머쥔 피아니스트 문지영,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를 비롯해 첼리스트 장우리와 김선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무용), 강연균 화백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호남예술제를 거쳐 갔다.

음악 분야 교육자로는 강숙자, 정애련, 박계, 조수현, 김애령, 김진숙, 김혜경, 서영화, 박행숙 등이 있다. 의재 허백련, 오지호, 시인 김현승, 무용가 옥파일 등 유명 예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예술제의 위상을 높여 왔다.

무용 부문에는 학창 시절 5차례 최고상을 수상한 김선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있다. 김 교수는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한 한성우 등 수많은 제자를 육성했다.

이 밖에도 뉴욕에서 활동 중인 현대 무용가 김영순은 물론 서차영, 김화래, 김화숙, 김미숙, 임지형, 박준희, 정희자, 박선욱 등이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제 69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발레	클래식 독무 초등부 3.4학년	창작 독무 초등부 3.4학년
2 박시은(광주송원중1) ▲ 동상 4 정하랑(장덕중1)	◇ 클래식 독무 초등부 1.2학년 ▲ 최고상 3 백다원(광주예술고1) ▲ 은상 2 배우린(광주예술고1) ▲ 동상 5 유해원(성덕고1)	◇ 창작 독무 초등부 5.6학년 ▲ 동상 3 윤아인(화정남초5)
◇ 클래식 독무 초등부 3.4학년 ▲ 금상 1 이루다(태봉초4) 8 박선우(유촌초4) ▲ 은상 2 이준우(화정남초4) 7 김서현(새별초4) ▲ 동상 3 배지후(광주본초초4)	◇ 클래식 독무 초등부 5.6학년 ▲ 금상 1 이연우(화정남초5) ▲ 은상 5 노연서(한울초6) 8 김세아(조봉초5) 11 김유아(대지초6) 16 강린하(수원초6) ▲ 동상 7 양정윤(광림초6)	◇ 창작 독무 초등부 5.6학년 ▲ 동상 3 윤아인(화정남초5)
◇ 클래식 독무 중등부 1.2학년 ▲ 은상 1 서현영(광주화정중1)	◇ 클래식 군무 초등부 ▲ 금상 1 김단아 외 13(광주살레시오 초 3-6) ◇ 창작 독무 초등부 1.2학년 ▲ 금상 1 심은지(광주서림초2) ▲ 은상 11 여운서(광주송원초2) ▲ 동상 2 오로라(광주송원초1) 4 임나운(태봉초1) 12 임로윤(광주학강초2)	◇ 창작 군무 초등부 ▲ 금상 2 이루다 외 5(초등연합) ▲ 은상 3 김태연 외 25(광주삼육초1-5) 4 최시유 외 26(광주송원초2-6) ▲ 동상 1 서연우 외 2(초등연합)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30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6월15일, 풍암호수공원

6월22일, 천변 동천동



클래식+대중음악 '앙상블 정다운' 멜로디

"일반적으로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라는 편견이 존재하지만 실내악과 성악의 조화,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만나는 '새로운 클래식'은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와 클래식의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공연의 특징을 묻자 돌아온 '앙상블 정다운' 김혜란 음악감독의 답이다. 이들은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 아트스페이스에서 정기연주회 'HELLO SPRING'을 앞두고 있다.

2023년 창단한 앙상블 정다운은 친숙한(정다운) 멜로디를 통해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간다는 기치를 내걸고 플루트와 클라리넷, 피아노와 성악을 들려주는 클래식 단체다.

공연 1부는 클래식 공연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스콧 조플린의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오펜바흐 곡 '캔 캔', 쇼팽의 '야상곡 Op.2'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이어 2부에서는 로이킴의 '봄봄봄', 안예은의 '상사화(역적 OST)', 장범준 곡 '벚꽃엔딩' 등 대중가요가 귀를 즐겁게 한다. '꽃밭에서(정훈희)', '이루마 메들리(이루마)' 등도 관객들을 만난다.

앙상블 정다운은 한양대 음악대학원 및 포항공과대학교원을 졸업한 김혜란(클라리넷) 음악감독을 필두로, 조선대 음악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김진선과 독일 Bachelor 과정을 수료한 최지은이 플루트 연주자로 소속돼 있다.

전남대 음악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남대 정기오페라 '카르멘'에서 주역을 맡았던 박주연은 보컬, 중앙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하성진은 팀에서 피아노 연주를 맡는다.

김혜란 음악감독은 "이번 공연은 관객들의 클래식 장벽을 낮추기 위해 1부는 클래식, 2부는 대중가요로 꾸몄다"며 "이 밖에도 6월 15일에는 풍암호수공원에서 버스킹 공연, 같은 달 22일 천변동천동에서 공연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혜란 음악감독은 "이번 공연은 관객들의 클래식 장벽을 낮추기 위해 1부는 클래식, 2부는 대중가요로 꾸몄다"며 "이 밖에도 6월 15일에는 풍암호수공원에서 버스킹 공연, 같은 달 22일 천변동천동에서 공연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디자인진흥원, 공예품대전 광주 예선 작품 공모

공예품대전은 공예기술 전승과 우수 공예품 발굴, 상품화 등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로 54회째를 맞았으며 그동안 다양한 우수 공예품들이 발굴됐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2024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참가를 위한 광주지역 예선 작품을 공모한다.

분야는 목·철, 금속, 도자, 섬유, 종이, 기타공예 등 6개 분야이다. 일반부·학생부를 통합해 진행되는 올해 예선 선정 작품은 본선 출품 자격이 주어지며 개별 장려금(시상금), 전문가 컨설팅, 빛고을엔드메이티브레드 참가 등 마케팅도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광주시에 거주해야 한다. 단 국내·외에서 이미 전시되었거나 상품화된 제품, 다른 유사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 이상 수상한 작품 등은 출품이 제한된다.

접수는 한국공예품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류를 신청하고, 서류 및 작품 실물을 5월 30일(오후 5시)까지 광주디자인진흥원 전시장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본선 심사는 오는 8월 충남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차 손가락의 감촉 '햇차를 기다리며'

곡우는 24절기 중 여섯 번째 절기로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기다. 대략 4월 20일로, 봄비가 자주 내리며 나무에도 물이 많이 오르는 시기다.

곡우 절기 무렵부터는 녹차의 세작이 나온다. 옛 선조들은 곡우에 따서 만든 첫차를 마시는 것을 호사로 여겼다. 새로운 차맛에서 일상의 여유와 삶의 고단함을 풀곤 했다.

차를 마실 때 필요한 손가락을 차척(茶杼) 또는 차시(茶匙)라고 한다. 차척은 차를 담는 차항을 비롯해 차통, 차를 내리는 행다에서 중요한 도구다.

차 손가락 100여점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소암미술관(관장 양동호, 5월 12일까지)에서 열리는 '햇차를 기다리며'전은 임성택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임 작가는 지난 20여 년간 나무를 다듬고 새기는 목공예 작업을 해왔다. 작품에서는 한 눈 팔지 않고 한 길로만 매진해온 작가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임 작가가 목공예로 들어선 것은 우연히 선암사에서 스님과 차를 마시다가 완상용 차척을 접하고

임성택 개인전 5월12일까지 소암미술관



'차 손가락'

서였다. 그의 눈에 비친 차 손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예술 그 자체였다.

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를 반쪽으로 나누고 다른 한쪽을 얇게 깎아 내야 한다. 선비차의 경우에는 원형 대나무의 한쪽만을 대각선으로 잘라 떼내기 좋게 만든다. 대나무를 주로 쓰는 이유는 차항을 제해하지 않는데다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임 작가의 작품은 먹다나무를 바탕으로 한 차시다. 유연하면서도 울퉁은 느낌이 작가의 작품세계

를 대변한다. 예술적인 조형미와 고아한 아름다움이 있어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양동호 관장은 "차를 마시는 음다예의는 귀로는 찻물 끓는 소리를, 눈으로 차 색깔, 입으로 차의 맛을, 손으로 찻잔의 감촉을 즐기기 위함"이라며 "이번 임성택 작가의 초대전에서는 차는 물론 차시가 주는 답답한 위로와 유려한 곡선의 조형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호남지역 문화예술 대학 졸업전시 지원

ACC는 최종 선발된 4개 학과에 문화정보원 내 대나무 정원을 전시 공간으로 제공하고 전시장 구축 및 전시 개막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다. ACC 대나무 정원이라는 공간 특성에 어울리는 전시장소의 적합성, 기획서의 실현 가능성, 전시주제의 참신성, 관람객과 소통을 위한 공공·공감성을 주된 기준으로 평가한다.

전시는 오는 10-12월 학과별 10일씩 총 40일

간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며 전시 준비·운영 과정의 협업 기회를 통해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 및 자세한 문의는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강현 전담장은 "이번 공모는 예술대학 연계 졸업 전시를 통해 미래 문화예술 창·제작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마련했다"면서 "관심 있는 호남지역 예술대학 졸업 예정자(학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